발 빠른 현장 복구 '구슬땀'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피해복구 '속도'

익산시가 19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빠른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긴급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복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빠른 피해현장 복구와 함께 시민피해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지원 받는다.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로 2차 피해 차단에 위해 망성면 화산리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와 피해조사 접수반을 투입해 농지, 축사, 농기계, 주택,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현장 복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비가 그친 오늘 빠른 복구를 위해 군과 합동으로 수해복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천여명의 군인들은 침수 피해가 큰 망성, 용안, 황등면 현장에 투입돼 축사, 하우스, 주택 등에 유입된 토사 및 잔해, 기름유출 제거 등 수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향토사단인 육군 제35사단은 오혁재 사단장이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며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했다.

106연대와 3대대 680여 명은 침수된 축사, 하우스, 주택 복원을 위해 물을 빼고 토사를 제거했으며 경찰기동대 360명은 이재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복구에 힘을 다했다.

앞서 18일에는 비가 잠시 그친 상태에 35사단 3대대 78명이 망성면과 황등면 일원에 투입돼 침수됐던 주택의 가재도구 정리와 공장과 하우스의 침수 복구를 완료했다.

정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와 함께 군부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도움이 신속한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벼 방충해 방제' 총력

병해충 2차 피해 발생 우려… 소강상태 지역 방제 본격 실시

익산시가 집중호우 이후 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벼 재배농가에 비가 그친 후 바로 적기방제 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4번째 쌀 생산지 익산의 벼재배 면적 27%인 4천여ha가 전부 잠긴 관수 상태이며, 벼가 물에 잠긴 침수 피해까지 합하면 전체 70% 이상 피해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자가 방제와 농협 위탁 항공방제를 적극 지원해 벼 병해충 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까지 자가방제와 위탁 항공방제 지원 농가 2차 접수를 마감했다. 앞서 지난 6월 1차 접수를 완료한 자가방제 8천868ha, 위탁방제 3천941ha 농가들은 오늘부터 비 소강상태에 맞춰 방제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 6천만원을 들여 1만6천여ha 규모로 자가 방제와 농협 위탁 항공방제 지원을 통해 7,000여 농가가 동시에 집중 방제해 병해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지역 대부분 논은 침·관수 되어 벼가 연약해져 높은 습도와 고온으로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발생에 취약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벼 수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잎도열병이 발생하면 이삭도열병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비가 그친 즉시 전용 약제로 초기 방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적기방제 뿐만 아니라 벼가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물을 빼주고 물 걸러대기로 흙 앙금제거, 산소공급, 수온 저하 유도로 뿌리 활력을 촉진시키고 잎색이 짙은 논은 장마가 계속될 경우 이삭거름을 줄여달라고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전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병해충 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신속한 수해복구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 총력

강임준 군산시장, 긴급회의 통해 산사태우려지역 등 주민피해 대비 절저 주문

강임준 군산시장이 신속한 수해복구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3시 부시장, 국소장, 안전총괄과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내린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군산지역에는 평균 589mm의 비가 내렸으며 읍면지역 270건, 동지역 398건 등 총 668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중 41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258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호우피해 현장의 우선지원을 위해 육군 제9585부대 1대대, 공군38전대, 7공수특전여단 등 군인력 157명과 굴삭기 1대가 참여해 수해복구를 실시했으며 18일 우천으로 인해 19일부터 추가 수해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도로보수 등 피해복구를 위해 3개조 16명의 현장대응인력을 구성해 24시간 피해복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전직원 비상근무를 통해 45개 관과소 직원들이 27개 읍면동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및 재난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빗물받이 현황,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및 제방 주변 등 위험지역 주민대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16개 읍면동 160세대 283명이 일시대피를 실시했으며 상황이 종료된 곳은 귀가 조치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한 복구와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쓰레기와 위생상태 등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실시해 선진복구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부터 이번 수해로 장비(포크레인 등) 투입이 어려운 피해지역에 토사정리 및 제거를 위해 관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투입반(현 인원의 1/3)을 편성해 인력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2차 침수피해 차단 감염예방 집중방역

익산시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지역의 2차 피해인 감염병 및 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방제에 나섰다.

시는 무더위와 집중호우까지 더해 침수지역의 물 오염으로 수인성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발생위험의 증가로 긴급방역을 실시한다.

보건소 방역소독기동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침수지역을 비롯해 주택가, 하수구, 공원,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방역을 추진한다.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자가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기와 방역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운영 중이다.

특히 풍수해로 인해 서식처의 환경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하절기 집중 방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 4회,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통한 야간 방역을 실시하는 등 위생해충 방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8월에는 다이로움일자리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방역소독해 즉각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지역내 감염병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과 익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호우 피해 복구대책 마련에 정치권과 머리 맞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익산시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9일 통합전수교육관 대공연장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관련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호우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피해복구 총괄보고와 함께 피해가 큰 농업분야와 건설분야에 대한 복구대책을 공유하고,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13일부터 엿새간 평균 430mm의 집중호우로 농경지 4,970ha가 침수되었으며, 280여건 하천 제방 유실, 도로침수와 230여건의 주택침수 등 큰 피해가 속출했다.

김수흥·한병도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오늘 익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만큼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두분 국회의원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망성면 화산리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1,000여명의 피해복구 지원 인력을 마련했으며 2차 피해 차단과 신속한 피해복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군산시 인사청문실시협약 체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과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9일 군산시 산하 출자기관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시의회의 제안을 군산시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군산시장이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임명과정에서 윤리성과 전문화된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 해양경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구슬땀'

군산시는 지난 17일 군산 해양경찰이 금광초등학교 뒤 토사유실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금광초등학교 뒤 월명공원 인접지에 토사유실이 발생해 금광초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있던 장소다.

이에 군산 해경은 자발적으로 3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유실된 토사를 포대에 담아 재해발생지 주변 축대 쌓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복구작업을 통해 2차 토사유실 피해를 예방, 금광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준 군산 해양경찰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